

존경하는 바바 요시히사 총장님과 소카대학교의 교직원, 학생 여러분,

‘교육과 문화 건설의 요람’이자 ‘평화의 요새’인 소카대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소카대학교’ 하면 제가 참석했던 2017년 10월 ‘창가 영광의 모임’ 장면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소카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연기를 마치며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교가를 합창하던 장면은 생애 잊지 못합니다. 훌륭한 이상 아래 학생과 교수님들이 하나된, 아름다운 사제의 유대는 제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고, 소카대학교는 인류의 맑은 미래와 희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소카대학교에 방문하면서 캠퍼스 곳곳에 창립자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의 혼이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케다 선생님과 그의 만남에서 선생님의 겸손함, 당당한 인격, 그리고 약자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전 세계’라는 지평에서 평화를 바라며 평생을 행동하신 진정한 위인이십니다. 그런 창립자의 정신과 혼이 소카대학교 학생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인류가 다 함께 영지를 모으지 않으면 전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한 나라’라는 좁은 사고의 틀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소카대학교의 사명은 더더욱 커질 것입니다.

소카대학교는 지금까지도 빛나는 역사를 써왔지만, 창립자의 건학 이념을 훌륭히 계승하면서 개교 100주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비상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대한민국 전 국무총리 이수성

